

[2025년 신년사] 재인니 한국건설업협의회 ...한인 동포사회의 뿌리가 되어 멋진 경쟁과 건승을 이루어 내는 한 해가 될것



▲재인도네시아 한국건설업협의회 회장 황의상

반갑습니다

희망찬 을사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한껏 품은 새 해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한국 건설기 업은 1973년 한.인니 수교 이 전 1970년부터 들어와 오지 와 험지를 드나들며 한국의 위상을 이땅 인도네시아에 심 었습니다.

벌써 반 백년이 훌쩍 넘어 55 년의 역사를 선배 건설기업인 들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지구촌 어디서든 가장 먼저 개척하고 도전하는 것은 우리 건설인 일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건설협의회에서

는 과거 우리 선배들의 고난 과 역경, 그리고 개척과 도전 정신의 기록들을 남기기 위해 재인도네시아 한국건설협의 회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또 한 새해에는 영문, 인니어 홈 페이지를 개발해 회원사의 홍 보와 자료, 정보공유를 통한 탄탄한 협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건설기업인 모두가 하나하나 일구어 나가는 사업들은 미래의 우리가 되어 찬란하게 빛날것입니다.

인도네시아 한국 건설기업은 이땅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단 순한 업종의 진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신과 뿌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했던 나라 한국이 선진국으로 성장하여 세계경 제의 한 축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우리 건설인들이 그 선 봉에 섯기 때문일것입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건설업협 의회는 2025년 새해에도 인 도네시아 한인 동포사회의 뿌 리가 되어 멋진 경쟁과 건승 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회원사님의 가정과 사업장에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한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건설업협의회 회장 황의상

[2025 신년사]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이장근 대사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이장근 올림

존경하는 재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여러분,

희망찬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새 해를 맞이하여 마음 깊이 새 해 인사를 올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돌아 보면 그리고 고국의 복잡한 상황을 생각하면 무거운 마 음을 떨쳐내기 어렵지만, 새 해에는 밝은 기대로 하루하루를 채워 가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함께 내딛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위기와 도전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갔듯이, 새해에도 직면하고 있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한국인 특유의 기질과 기상으로 잘 극복하고 다시 비상하게 될 것으

로 확신합니다.

한국이 수 많은 시련을 이기 고 오늘의 발전을 이루기까지 재외동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재인니 동포사회의 발전과정 역시 우리나라 발전의 역사와 맥을 같이해 왔습니다. 재인니 동포사회는 이 낯선 땅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어려움을 함께 해쳐나가 오늘과 같은 성공을 일구어 내었고, 나아가 고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새해에도 재인니 동포사회가 성공과 발전을 거듭해 나가면 서, 이런 역할을 지속하기를 기원하며 또 응원합니다.

2025년은 인도네시아가 중심 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아세 안에게 매우 중요한 해입니 다. 2025년을 목표로 추진해 온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 구축을 마무리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비전과 전략을 결정하는 해이기 때문 입니다.

세계는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 4위의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중 등 강대국들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은 외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 난해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 립 35주년을 계기로 양측간의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함 으로써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 습니다. 그리고 2025년은 새

로운 단계, 최고수준의 단계 에 접어든 아세안과의 포괄적 전략관계를 구체화 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다양한 사 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발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 강 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나 아가 재인도네시아 동포사회 의 발전에도 매우 주요한 요 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가 올 한 해에도 한-아세안 우호관계 증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을 시작 하며 재인니 동포 여러분 모 두 더욱 건강하시고, 계획하 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뤄내는 행복한 한 해가 되 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 사합니다.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대사 이장근 올림



[2025년 신년사]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대리, '팀 코리아' 협력 강화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대리

존경하는 재인도네시아 동포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 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 며, 동포 여러분 각각의 가정 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2024년 인도네시아의 우리 동포사회는 국내외 정 치·경제적인 불확실성과 굵 직한 변화들 속에서도 어려움 을 극복해 나가는 단합력을 아낌없이 보여주셨습니다.

2024년은 한국과 인도네시 아 양국 관계의 지난 50년을 되돌아 보고,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원년이 되는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2024년 4월 재인니한인상공 회의소(KOCHAM)와 주요 공 공기관이 협동하여 '팀 코 리아 플랫폼'을 출범시켰습 니다. 변화하는 인도네시아 의 정책과 규제에 대응하고, 동포사회와 진출기업의 목소 리를 체계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전달하는 틀을 갖추 게 되었습니다. 팀 코리아 협 업을 통한 수입규제 등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결, 건설, 에 너지 등 분야별 협의체 운영,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에 대 한 사회적 공헌 활동(CSR) 등 성과를 토대로 우리 인도 네시아의 팀 코리아 플랫폼 이 '2024년 외교부 정부혁 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 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서 '팀 코리아'정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3.1 운동에 참여한 장윤원 선생 이 일제의 탄압을 피해 인도 네시아로 망명해온 1920년 이래, 1972년 조직한 재인도 네시아 대한민국 거류민회는 한인 동포들의 선구적인 '팀 코리아'정신을 통해 현지 인 도네시아인들과 상생(相生)하 고 협력하면서 오늘날의 단단 한 한인 공동체를 만들어냈습 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 동 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동포사회가 인도네시아 저변에 쌓아오신 경제, 사회, 문화적 기여는 우리나라의 가 장 큰 자산입니다. 우리는 오 랜 기간 고통과 난관을 극복 하며 이역만리(異域萬里) 인 도네시아에서 우리의 터전을 개척하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 니의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 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 자 너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 려줘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 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우리 국익신 장과 동포 사회의 권익 향상 을 위해 '팀 코리아' 협력 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 다. 프라보워 신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인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다운스트리밍 산업정책 과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원자재 공급망 및 시장 확보를 조화시키기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을 더욱 확대하고 양국의 경제적,인적,문화적 교류를 증진하는 사업들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계획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내 한국교육원의 설립은 양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와 소통, 동포 자녀 교육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기대합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인간이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고백은 '부끄럽습니다'라고 합니다.

지난 일요일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과 유가족들 의 오열 앞에서 비통합과 함 께 참담(慘憺)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 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마음 깊이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 푸른 뱀'은 지혜와 치유와 풍요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보다 건강 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한 해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대리 박수덕

[2025년 신년사]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한인 가족 여러분,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김종헌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의 첫날, 여러분께 인사를 드 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한인 사회의 번영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한인 사회는 많은 도전과 변 화 속에서도 끈끈한 단결력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큰 성 장을 이뤘습니다. 각자의 자 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모 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재인 도네시아 한인회의 든든한 토 대이자 자부심입니다.

특히 2025년은 7대 한인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우리 한인회가 대 큰 도약을 준비하는 중 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한인회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반영하는 열린 소통의 장이되겠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교류 행사를 확대하여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독려하고, 서로의 유대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한인 사회의 안전과 권 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습 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현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 록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아 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차세 대 한인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전수하며, 자랑스러 운 글로벌 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함께할 때 더욱 빛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협력하는 한인회 가족의 따뜻 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자 산입니다.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손을 맞잡고 희망찬 미 래를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 어린 관심이 한인회의 발전을 이 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2025년 새해가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기쁨 과 평안이 함께 하길 기원합 니다.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 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한인 회를 믿고 응원해 주시는 여 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 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김종헌



아세안대표부,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 준비 착수

2026-2030 수립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 아세안 인프라담당관 회의(AIOM), 대표부에서 개최



주아세안 대표부(대사: 이장 근)는 아세안 인프라 담당관 회의(ASEAN Infrastructure Officials Meeting)를 지난 12 월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대표부에서 개최하였 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주아세안대사 주재로 외교부 아세안협력 과,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 과·건설경제과·국제협력 통상담당관실을 비롯해 10개 아세안 회원국 주재 대사관의 인프라 업무담당관들이 참석 하였으며, 이밖에도 해외인 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UN ESCAP, 법무법인 세종, 무역 보험공사, 수자원공사, 건설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24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장근 주아세안대사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라오 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수립하 게 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적 동반자관계(CSP)를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인프라 분야의 아세안 협력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특히 2025년은 2009년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가 개 설된지 17년째 접어들면서한-아세안 교통협력로드맵 2026-2030을 새롭게 채택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이니만큼 아세안 각국에 파견되어있는 인프라 담당관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외교부 본부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과 한-아세안 미래협력 비젼을 발표하였고,국토교통부는 한-아세안 교통협력 로드맵 2026-2030추진방향 및 협조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10개 아세안 회원국 인프라 담당관들은 공관별

주요인프라 및 스마트시티 프 로젝트 등을 공유하였다.

아울리 아세안 대표부는 2025년 아세안 인프라 협력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아세안 연계성 전략계획 (ASEAN Connectivity Strategic Plan, ACSP)과 한-아세안 CSP 2026-2030 행동계획(POA) 등 중요한 전략문서가 채택되는 계기에 스마트시티 등 아세안 인프라협력추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세안 회원국 인프라담당관들이 내년도 발표될 ACSP 내 주요 프로젝트에 대

해서도 관심과 이해를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아세안 시장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전략의 발표에서 개발 수요가 큰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개도국형 투자개발 사업에 ODA, EDCF 등 복합 금융(Blended Finance) 사례와 함께 사업환경 조성지원, 보조적 금융지원, 사업분리 구조 등의 해외건설 수주의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세안대표부=데일리인도네시아]

인니 국영기업부, 2025년까지 국영기업 30개로 축소 추진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가 유사 분야의 기업합병을 통한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영기업 수를 2025년까지 47개에서 30개로 축소할계획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에 릭 토히르 국영기업부 장관은 건설, 항만, 페리 운송, 철도 부문의 국영기업의 합병 절 차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에릭 토히르 장관에 따르면 철도 부문에서는 철도회사 KAI가 철도차량 제조사INKA와 합병할 예정이다. 해양 분야에서는 항만 운영사인 Pelindo, 해운회사 Pelni 및 페리 운송사 ASDP가 합병될 예정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현재 7개 의 기업을 3개 클러스터로 통합할 계획이다. 해당 기업 들로는 후타마 카르야(Hutama Karya), 와스키타 카르 야(Waskita Karya), PP, 위자 야 카르야(Wijaya Karya), 브 란타스 아브리프라야(Brantas Abipraya), 아디 카르야 (Adhi Karya), 닌디야 카르 야(Nindya Karya) 등이 포함 된다.

에릭 토히르 장관은 "지난 5 년 동안 45개 프로그램을 논 의했으며, 그 중 47개 기업 을 30개로 통합하는 계획도 포함됐다"며 "이와 관련해 KAI-INKA 합병도 포함되지 만, 추가적인 연구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관은 합병 진행 상황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건설 부문의 국영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정부에서 부여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공공사업부와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 및 항만 분야의 합병이 페리 운송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건설 부문의 국영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적 및 기술적연구가 다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행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도록 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영기업부는 2020년부터 지 주회사, 합병, 인수 등을 통해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장관 [자료사진]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다. 2017년에는 142개의 국영기업이 있었지만, 2024년에 47개로 통폐합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니 정부, 원자력 발전소 후보지 29곳 선정



▲원자력 발전소 우선 후보지 중 한 곳인 북부 말루꾸 할마헤라 섬 (사진=구글지도 캡처)

인도네시아 국가에너지위원 회(DEN)는 총 45~54기가와 트(GW) 용량의 원자력 발전 소를 건설할 수 있는 29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자카르 타포스트가 11일 전했다.

국가에너지위원회(DEN) 아 구스 뿌지 쁘라스띠오노 위원 은 이 부지들이 주로 자바 섬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인도네 시아 중부와 동부 지역의 경 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 대된다고 말했다.

아구스는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4 DEN 어워드 행사에서 "쓰나미 위험, 화산, 지진 단 층선 등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이로부터 최소 5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말했다.

부지는 서부 깔리만딴, 방까블리뚱, 남동 술라웨시, 북부 말루꾸의 할마헤라가 우선적 으로 선정된다.

아구스에 따르면 이 네 곳은 산업 단지와 제련소 등 수요 센터와 가깝기 때문에 우선순 위로 선정되었지만 이 지역들 이 지진 발생 위험이 높은 곳 이기도 하다.

아구스는 일본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이 발생하기 쉬 운 지역에 위치해 있다며, 인 도네시아도 그러지 못할 이유 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 네시아가 8%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지진 취약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지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제르바이잔

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 약 당사국총회(COP29)와 브 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회의 등 과거 국제 행사 에서 여러 차례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겠다고 다짐 하고 더 많은 청정 에너지를 도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지난 몇 년 동안 투자 목표를 달성하 지 못하는 등 재생 에너지 목 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는 초기 용량이 250MW인 첫 번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로드맵에따르면 이 발전소는 2031년에서 2035년 사이에 건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과거 지역 주민들의 거부감을 감안하여 에너지원 에 대한 대중의 수용도를 측 정하기 위해 소규모로 시작하 기로 결정했다.

아구스는 인도네시아가 2036

년부터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8GW로 늘릴 예 정이며, 이해 관계자들의 빠 른 확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통령이 개정 초안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영전력회사 PLN은 지난

국영전력회사 PLN은 지난 10일, 5GW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약 29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인도네시아의 원자력 발전소 용량은 2041년부터 2050년까지 21GW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구스는 2060년의 총 용량은 45~54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파리 협정에 따른 탄소중립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할 방법을 모색하면서 당초목표인 2039년보다 7년 빠른 2032년에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의 상업 가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발전소가 국내 총 91.16기가와트(GW)의 발전 용량 중 54% 이상을 생산했고, 석유와 가스 발전소가 30% 이상을 생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IBK투자 "롯데케미칼, 회사채 조기상환 리스크 해소"

IBK투자증권은 롯데케미칼 [011170]이 2조원대 회사채의 재무약정 위반이 발생하게한 특약을 조정한 것에 대해채무 조기 상환의 위험을 해소했다고 20일 평했다.

전날 롯데케미칼은 기한이익 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14 개 공모 회사채의 사채관리계 약 조항 내 실적 관련 재무 특 약 조정이 가결됐다고 밝혔 다. 이를 위해 롯데케미칼은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제공 해 신용을 보강했다.

롯데케미칼은 앞서 석유화 학 업황 침체에 따른 수익성 저하 여파로 해당 14개 회 사채의 약정 중 3개년 누적

'EBITDA(상각 전 영업이 익)/이자비용'을 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을 충족 하지 못했다.

EOD가 선언되면 사채권자가 회사채 만기 이전에 조기 상 환을 요구할 수 있어 회사 측 의 재무 부담이 커진다. EOD 사유가 발생했던 회사채 발행 잔액은 2조450억원 규모다.

이동욱 IBK투자증권 연구원 은 "이번에 유동성 위기를 일부 완화하면서 향후 재무 안정성이 강화할 전망"이라



며 "특별이자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이는 연간 20억원 수 준에 불과할 전망"이라고 말 했다.

그룹 건설 부문에 대해선 "2022년 정비/도급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제공한 신용 보강 규모는 6조8천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3분기에는 4조9천억원까지 감소

했다"며 "향후 본 PF, 담보 대출 전환, 사업권 매각 등을 통해 내년까지 PF 보증 규모 를 2조5천억원대로 줄일 계 획"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인도네시 아 자회사 지분 등을 활용한 에셋라이트(자산경량화) 전략 이 현실화하고 있고, 인도네 시아 석유화학단지 건설(라인 프로젝트) 완료로 내년 이후 시설투자(캐펙스·CAPEX) 가 급감하는 점도 회사의 재 무구조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 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www.lscns.com www.lsag.co.id

Karawang 공장

Artha Industrial Hill Blok E Kav 20-21, Wanajaya, Telukjambe Barat,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021 3973 3988

Jakarta 영업소

Revenue Tower Jl. Jend. Sudirman kav 52-52 No 8 Senayan, Kebayora Baru, Jakarta Selatan, DKI Jakarta 12190 Tel: 021 3973 3988

한국인 상담

Tel: 0821 2472 2214 0813 3331 8315

대리점



Ruko Dalton Extension DLNT 052-053, Jl. Scientia Boulevard, Gading Serpong, Curug Sangereng, Kelapa Du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810 Tel: 0811 8126 7788, 0811 8430 561 (한국인 상담)

인도네시아 다목적댐 '까리안댐' (자료:한국놈이존공사)



그라찍문지원 아시아경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권 해안종합개발사업(NOCD) 조감도. 한국농어촌공사 가 새만금 기술력을 토대로 대방조제 설계를 맡았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 가 위치해 있는 자바섬은 매 가라앉고 있다. 상·하수 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 지 않다 보니 주민들의 지하 수 사용이 많고, 퇴적 지형인 탓에 지반 침하가 빠르게 진 행되고 있다. 기후 변화로 해 수면 상승까지 이뤄져 바닷물 이 넘어오는 현상도 발생하

뤄질 예정이다. 아직 본격적 인 사업 추진 시기가 확정되 지 않았다 보니 우려도 나오 지만 현지 개발 의지가 상당 하다는 게 농어촌공사 설명 이다.

최근 현지에선 대방조제 사 업을 두고 '국가 40년 생존 의 문제'라는 평가가 나오기 도 했다. 지난 10월 새로 취임

공을 앞둔 까리안댐도 자카르 타 지반 침하를 막을 주요 거 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인도네시아 자카 르타에서 3시간여를 달려 자 바섬 반텐주에 있는 까리안댐 을 찾았다. 까리안댐 근처에 도착한 뒤 도로 양쪽으로 빼 곡하게 팜나무가 들어선 길을 차로 달려 가니 시야가 탁 트 일 정도로 넓게 조성된 댐 부 지에 다다랐다. 댐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고, 댐 너머를 멀 리 바라보니 동남아시아 특유 의 울창한 숲을 마주할 수 있 었다.

까리안댐은 자카르타 남서부 에서 약 100km 떨어진 반텐주 를 관통하는 찌우중강 지류에 있다. 규모로는 인도네시아에 서 세 번째로 큰 댐 시설이다.

년이 넘는 한국 댐 기술력을 토대로 2014년 까리안댐 수 주에 성공해 설계와 감리를 맡았고,

DL이앤씨는 현지 국영 회사 와 컨소시엄을 맺는 형태로 댐 건설에 뛰어들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길이가 좁고 깊 은 강 지형에 맞춰 여러 댐이 건설됐다면, 까리안댐은 너비 수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미 인근 주민들이 오토바이 등 을 타고 와서 주변을 구경하 며 쉬다 가는 명소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대가 높아 인근 지역보다 기 온이 낮고, 오후가 지나면 댐 일대가 선선해지기 때문이다. 대규모 댐을 본 적이 드문 현 지 주민들에겐 댐 자체도 구



'K-기술력'으로 가라앉는 인도네시아 구한다

자바섬 상ㆍ하수도 시설 미비퇴적지형 지반 침하 빨라져대방조제 쌓아 침몰 막는다 다목적댐 '까리안댐'도 건설 농어촌공사서 설계·감리 맡아식수 공급해 지하수 사용 감소

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토 침몰을 막기 위해 해안 일대에 대방조제를 쌓고 강에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등 분주 하게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다.

이같은 사업 중심에는 한 국 기술력이 있다. 인도네시 아 정부는 자카르타 북부 해 안 일대에 대방조제를 쌓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자카르 타 수도권 해안종합개발사업 (NCICD)'을 추진했고, 한국 농어촌공사가 2016년 외해 방조제(21km)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맡게 됐다. 인도 네시아 정부가 기존에 네덜란 드와 추진하려던 사업이지만 새만금 사업 경험이 풍부한 우리나라 기술력을 앞세워 농 어촌공사가 적극적인 영업을 펼친 결과 3국이 협력하는 사 업으로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지난달 26일 대방조제가 들어 설 자카르타 북부 해안가 플 루이트 마을에 가자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 었다. 해안가에는 길게 뻗은 도로를 따라 1m가 넘는 둑이 설치돼 있었다. 기존에는 높 이가 낮았지만 여러 번 덧대 쌓아 올린 흔적이 가득한 둑 이었다. 둑 너머에는 바닷물 이 곧 넘어올 것처럼 넘실거 렸다. 이날 현장을 찾은 기자 단과 동행한 남호성 농어촌공 사 글로벌사업처 부장은 "5 될 경우 농어촌공사뿐 아니라 년 전만 하더라도 둑 너머 반 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며 "이곳에 올 때마다 수면

이 빠르게 오르고 있음을 느 끼고 있다"고 말했다.

대방조제는 길이만 33km에 높이는 20m 규모로 해안가를 따라 길게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책정된 사업비만 20조 원에 이른다. 대방조제를 쌓 으면서 생기는 매립지를 통해 선 추가적인 도시 개발이 이



▲지난달 26일 대방조제가 들어설 자카르타 북부 해안가 마을 일대 모습. 바닷물이 넘어오지 않도록 해안가 도로를 따라 둑이 길게 설치돼 있다.

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 시아 대통령 역시 해당 사업 에 관심을 두고 있어 희망적 인 상황이다.

게다가 2030년이 되면 북부 자카르타의 90% 면적(1만 2500ha)이 해수면 아래 위치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 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존 계획에 더해 추가로 자바섬 북부 해안 일대로 사업 영역 을 넓혀 대방조제를 쌓으려고 구상하는 배경이다. 이 경우 사업비는 약 100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현재는 대방조제 기본 설계를 담은 보고서가 인도네시아 대 통령에게 보고된 상태로, 앞 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 한국 민간 기업도 매립지 개 발 사업 등을 뛰어들어 먹거 리를 늘릴 수 있게 된다. 남 부 장은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대방조제를 설치하고 매립지 를 개발하게 되면 교통 정체 를 완화하고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부 연했다.

자카르타 식수 공급하는 다목적 '까리안댐'

인도네시아 다목적댐으로 완

길이 516m, 높이 63m로 저 수 용량은 3억1500만m³에 이 른다. 우리나라 팔당댐 규모 와 비슷하다. 까리안댐은 댐 과 부댐, 지주탑, 가배수 터널 등으로 이뤄져 있다. 2013년 시작된 공사로 현재 주요 시 설이 완공된 상태이며 조경 등의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 이다. 지난해 9월 담수를 시작 해 지난달 기준으로 79%까지 물이 찼다.

까리안댐은 우리나라 기술과 자본이 투입됐다 보니 현지뿐 아니라 국내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100 가 길고 깊지 않은 것이 특징 이다. 농어촌공사는 우리나라 처럼 강 규모가 크지 않은 인 도네시아 지형 특성을 반영해 까리안댐을 설계했다.

까리안댐은 앞으로 자카르 타와 반텐주에 각종 용수를 공급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 을 하게 된다. 400만명이 사 는 자카르타 서부 지역 식수 를 책임질 뿐 아니라 댐 인근 에는 농업 용수를 공급할 예 정이다. 지하수 사용이 과도 해 지반 침하를 걱정하는 인 도네시아로선 필수적인 사업 일 수밖에 없다. 최낙원 농어 촌공사 글로벌사업처 까리안 댐 단장은 현장에서 "자카르 타 주민의 60~70%가 지하수 를 사용하고 있다"며 "과다 사용으로 지반 침하와 해수 유입이 반복하는 상황"이라 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 으로 다목적 용수를 공급한다 면 지반 침하를 완화할 수 있 다"며 "이것이 우리 프로젝 트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까리안댐은 홍수 조절을 통 해 재해를 방지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또 1.8MW 규모의 소수력 발전도 계획에 있다. 댐 주변의 조경 시설을 통해 댐을 지역 관광지로도 키울

경거리가 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계획이 실현하려 면 남은 과제들이 있다. 까리 안댐이 가동 준비를 마쳤더 라도 50km 떨어진 자카르타 로 식수를 공급하려면 도수로 가 개설돼야 한다. 현재 한국 수자원공사(k-water)가 민관 합작투자사업(PPP)을 추진하 고 있지만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도수로 건설만 마무리된다면 까리안댐은 곧바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자카르 타 북부 해안 대방조제뿐 아 니라 까리안댐 등 각종 사업 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현지에 서 K-기술력 위상을 높이겠 다는 구상이다. 현지에서 만 난 오영인 농어촌공사 인도네 시아사무소장은 "앞으로 인 도네시아에서 농어촌공사 기 술력(K-농공기술)을 펼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겠 다"며 "사업을 많이 만들어 서 농어촌공사가 깃발을 들고 민간 엔지니어링 기업들 모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많이 발굴하면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공간이 많아질 것"이 라고 말했다.

네이트뉴스



▲지난달 25일 인도네시아 자바섬 반텐주에 있는 까리안댐 일대 모습.



카타르, 인도네시아 주택 프로그램에 자금 지원

그러나 정부는 이 프로그램

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 자금

이 부족하다. 10월 말, 마루

아라 시라잇 공공주택 및 정

착부 장관은 주택 프로그램

의 연간 수요를 충족하기 위

해 23조 루피아 이상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무부

는 내년도 예산에 5조 루피아

대신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투자자

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랍에미리트

(UAE), 중국, 인도, 싱가포르

파흐리는 외국 기업이 농촌

지역의 주택개발 자금 조달에

도 참여하기를 바랐지만 쁘라

보워와 하심은 농촌 지역 주

택 개발은 농촌 경제를 활성

화하기 위해 협동조합, 소기

업, 마을 소유 기업(BUMD)

만 배정했다.

등이 포함된다.



▲서부자바 브까시 주택단지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공공주택 및 정착 부 파흐리 함자 차관은 카타 르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 령의 주력 주택 프로그램 개 발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타르가 인도네시아 전역의 도시에 건설하고자 하는 정부 의 주택 100만 채 목표를 지 원하는 데 참여한다는 것이 다.

파흐리 함자는 지난 9일 자카 르타 하원에서 열린 회의 후 "이 주택 프로그램은 많은 국가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이 며 그들은 파트너십을 제안하 고 있으며, 중동에서 파트너 십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파흐리는 카타르의 아부다비 와 도하를 방문했을 때 그들 은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관 심이 있었고, 카타르는 이미 인도네시아에 카타르 국립은 행(QNB)을 두고 있으며 1백 만 가구에 대한 자금 조달은 이 은행을 통해 이루어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농촌 지역 에 200만 채, 도시에 10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공 언했고, 그의 동생이자 재벌 인 하심 조요하디꾸수모가 이 끄는 주택 태스크포스팀을 구 성했다.

이 참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 했다.

주택 개발 계획은 쁘라보워 의 우선순위 의제 중 핵심적 인 부분이었는데, 그는 이 계 획이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 률을 약 "1%"까지 끌어올 릴 수 있고, 돈이 해외로 유출 되는 대신 마을 내에서 순환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만 채 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할 때, 집 한 채 를 짓는 데 10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다면 100만 채의 주택 을 짓기 위해서는 천만 명의 근로자가 1년 동안 건설에 투 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에 주택 수요와 기존 주택 보유량 간 의 격차가 990만 가구에 달 해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직 면해 있다. 여기서 수요란 주 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택이 표준 이하로 열악한 모든 가 구를 의미한다.

전 공공사업주택부에 따르면 지난해 1,270만 채 이상으로 추정되는 주택 미처리 물량 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소위 주택난은 역대 정부에게 골치 아픈 과제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프라보워 "8% 경제 성장 위해 9천억 달러 투자 필요"

프라보워 수비안 토 대통령이 2029 년 임기 종료 전까 지 8%의 경제 성 장률을 달성하려면 국내외 투자자들로 부터 약 1경 3,528 조 루피아(약 9000 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가운데)과 장관들 [자료사진=프 라보워 대통령 페북]

프라보워 대통령은

임기 종료 전까지 인도네시아 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을 8%로 끌어올릴 목표를 세 웠다. 이는 최근 인도네시아 의 연간 성장률이 5%였음을 고려할 때 매우 야심찬 목표 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프 라보워의 꿈을 이루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9일 현지 언론이 밝혔다.

로산 루슬라니 투자부 장관는 이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 네시아-유럽 투자 서밋에서 "투자는 우리가 8% 성장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에 총 1,650조 루피아 규모의 투자 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에는 목표를 1,906조 루피아 로 상향 조정하여 연간 GDP 성장률을 6.8%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 면, 투자 목표가 2026년까지 2,280조 루피아에 이를 경우, 경제 성장률도 7.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7년 인도네시아 경제가 2,680조 루피아의 외 국 및 국내 투자를 유치하면 8.3%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 하고 있다. 2028년에는 3,116 조 루피아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경제 성장률이 8%로 둔

화되지만, 여전히 프라보워의 목표 범위 내에 있다. 2029년 에는 3,544조 루피아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경제 성장 률은 7.8%로 예상된다.

프라보워의 8% 성장 목표는 외국인투자자들, 특히 유럽연 합(EU)의 관심을 끌었다. 유 럽은 인도네시아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 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데니스 차니비 주인도네시 아 EU 대사는 이날 회담에서 "8% 성장은 가능하다. 중국, 한국, 싱가포르, 베트남이 이 미 (이 성장을) 달성했다. 베트 남은 FDI와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을 결합하여 성장했다" 라고 말했다.

데니스 대사는 "... (이것이 바로) 인도네시아-EU 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절차가 인도네시아를 글로벌 가치사슬에 통합하는 이유이 다"라고 말했다.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CEPA 협상과 관련해 데니스 대사는 "EU는 협상에 대한 명확한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 지만, 양측이 "모멘텀을 유 지하고 빠르게 협상을 마무 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월간 건설신문 창조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건설신문 창조는 건설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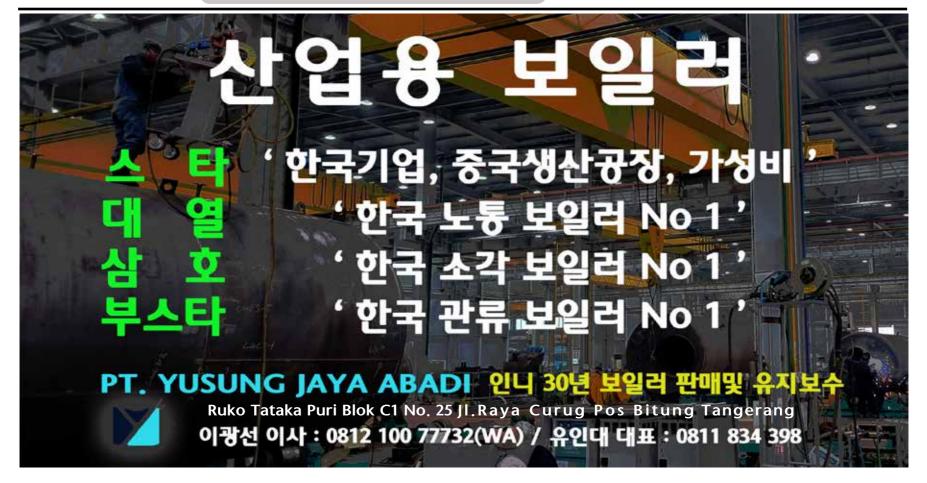
주요대상: 건설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2, 광고혜택

년간계약을 기본으로하며 계약시 광고디자인 무료 기업 홍보기사 전면으로소개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21 1122 8827** e-mail: khong3000@gmail.com



KT&G, 인도네시아 정부 감사장 받아… 7년째 장학사업

지난 2018년부터 장학생 약 1000명 선발 KT&G상상유니브·KT&G직업훈련센터 운영



▲KT&G는 지난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KT&G)

KT&G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 터 감사장을 받았다. 인도네시 아에서 7년 동안 장학 프로그 램을 운영하며 미래 인재 육성 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KT&G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교육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과 학기술 발전을 이뤄내는 글로벌 기업시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2일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오랜 기간 현지에서 장학사업을 전개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한 KT&G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KT&G는 지난 2018년 인도네시 아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해 지 난해 1월까지 1000명에 육박하 는 장학생을 선발했다.

지난해 1월 말 인도네시아 산업 부 산업인력개발청(BPSDMI)과

'폴리테크닉커뮤니티아카데 미' (AKOM) 장학사업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는 등 현지 인재 발굴·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업무협약을 토대로 AKOM 학생 130여명에게 4억 5000만루피아(약 3800만원) 규 모의 장학금을 지원했다.(본보

2024년 1월 31일 참고 KT&G,

글로벌 인재육성 팔 걷어…印

尼서 6년째 장학금 지급〉

이밖에도 인도네시아 대학생 들에게 문화·예술·취업· 창업 관련 무료 수업을 제공하 는 KT&G상상유니브, 취약계층 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KT&G 직업훈련센터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KT&G직업훈련센터의 경우 중 장년층 ·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 존 봉제 교육에 더해 지난 2023 년부터 청소년 · 청년층을 위한 컴퓨터 기술 교육을 신설하고 사업을 확대했다.

KT&G재단은 차세대 과학 연구 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안홍필 KT&G장학재단 사무국 장은 "해외 장학사업을 전개하 며 글로벌 사회의 책임있는 일 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 가별 특성을 반영해 설계한 여 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앞으 로도 글로벌 인재 개발에 기여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KT&G는 지난 2011년 인 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Trisakti)를 인수하고 현지 시장 에 진출했다. 지난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투자부와 신공장 건 설 관련 투자지원서 제공을 골 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현 지 생산거점 구축에 착수했다. 오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 고 있다.〈본보 2023년 9월 11일 참고 KT&G, 인도네시아 신공장 짓는다…"동남아 등 해외 수출 전초기지"〉

[THE GURU]

포스코, 우리은행과 손잡고 인도네시아 철강 경쟁력 강화

신용대출 등 미화 2억 달러 규모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크라카타우포스코가 원가 경쟁 력을 강화해 현지 철광석 및 원 료탄 구매를 확대한다.

크라카타우포스코는 17일 우리 은행과 '인도네시아 철강 경쟁 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 혔다.

우리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인 자 카르타 우리소다라은행 본사에 서 열린 이 날 협약식에는 정범 수 크라카타우포스코 법인장, 김응철 우리소다라은행 법인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 다.

업무협약에 따라 크라카타우포 스코는 우리소다라은행으로부 터 자국 원료 공급을 위한 금융



▲(왼쪽부터) 정범수 크라카타우포스코 법인장, 김응철 우리소다라 은행 법인장 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 공=포스코)

지원, 운전자본 신용대출 등 미 화 2억 달러 규모를 지원받는다. 크라카타우포스코는 인도네시 아 현지 철광석과 원료탄 구매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번 체결 을 통해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음으로써 중국산 수입재 범람 속에 원가 경쟁력을 강화 하고 우리소다라은행과 동반성 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정 크라카타우포스코 법인장은 "2026년까지 현지 철광석과 원료탄을 최대 30% 사용을 목 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재원 마 련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 하고 안정적으로 철강을 공급함 으로써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크라카타우포스코는 신용 평가사인 S&P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을 획득해 미화 7억 달러 규 모의 글로벌 본드 발행에 성공 했다. 개선된 재무구조와 수익 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을 추 진해 나갈 계획이다.



KCC글라스 "인도네시아 계열사 주식 1천6억원에 추가취득"



▲KCC글라스 인도네시아 바탕공장 [KCC글라스 제공]

코스피 상장사 KCC글라스 [344820]는 인도네시아의 판유리 생산계열사(PT. KCC GLASS INDONESIA)의 주식

1천124만8천545주를 약 1천 6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18 일 공시했다. 주식 취득 뒤 지 분율은 100%가 된다.

톰 슨 목 금 형 (톰슨발형) 아크릴 컷팅, 밴딩가공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빼그라이트등 레이져컷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컷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톰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톰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능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www.bslaser.com

Steel Laser Cu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2 (덕포동) TEL : (051) 637-9791~3 FAX: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1987busan@naver.com http://www.bslaser.com

Steel 레이져절단, 씨링칼, 톰슨금형, 특수 칼금형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생산 허브 꿈꾼다... "팔려면 만들어라" 오포·삼성, 현지 생산 투자 확대...애플, 투자 약속 불이행으로



▲애플스토어 입구에 있는 애플 로고. 사진=로이터

동남아시아의 광산물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스마트폰 생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 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트폰을 팔려면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라'라는 전략으로, 이는 현지 생산을 통해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라고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 이 아시아가 11일(현지시각) 보

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에서 스 마트폰을 판매하려는 기업들에 현지 생산 비율을 최소 35% 이 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 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인도 네시아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 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삼성 전자도 시카랑에 공장을 운영

하며 현지 생산에 적극참여하 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인도네시아 스마 트폰 시장의 성장과 함께 맞물 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시 장조사회사 카날리스(Canalys) 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인 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오 포는 20% 이상의 점유율로 1위 를 차지했으며, 샤오미, 비보, 삼 성이 그 뒤를 이었다.

오포는 탕그랑에 위치한 공장에 서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 하고 있으며, 인도에 이어 두 번 째로 큰 해외 생산 기지로 성장 했다. 오포 관계자는 "10년 전 만 해도 인도네시아에는 스마트 폰 공장이 없었지만, 정부의 적 극적인 지원 정책과 시장 성장 잠재력에 힘입어 스마트폰 산 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고 말했다.

모든 기업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은 아니다. 애플은 완제품을 현지에서 생산 하지 않고, 대신 인재 개발 투 자를 통해 현지 콘텐츠 요건을 충족해왔다. 그러나 최근 애플 이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 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이폰 16 시리즈 판매를 중단하는 강 경 조치를 했다. 현재 양측은 현 지 생산 투자를 포함한 협상을

생산 정책이 외국 기업들의 투 자를 유치하고, 스마트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부품 및 소재의 대부분을 여전히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인도네시아는 넓은 국토와 수 많은 섬으로 이뤄져 있어 효율 높은 공급망 구축이 쉽지 않다 는 지적도 있다. 대만 전자제품 제조업체 페가트론은 2018년 바탐에 공장을 설립했지만, 수천 개의 섬으로 이뤄진 지리 특성상 공급망 클러스터 구축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 혔다.

애플 또한 이러한 이유로 인도 네시아 현지 생산에 난색을 보 인다. 애플은 이미 베트남, 태국,

인도 등에 생산 기지를 확보하 고 있으며, 추가적인 생산 기지 확장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장기로는 자 국을 지역 생산 허브로 육성하 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렇지만 베트남과 인도 등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 인도네시아가 스마트폰 생산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이코노믹]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그렇다'와 '그러다'의 차이

'그렇다 보니'와 '그러다 보니' 가 헷갈리니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는 독자의 권유를 받 고 집필합니다.우선 예문을 보

세종시는 인구에 비해 상가가 많아. 그렇다 보니 급매물이 아 주 많아.

차식인 장난꾸러기야. 그렇다 보니 맨날 상처가 이물 날이

'그렇다 보니'는 상황을 나타 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상 태가 그와 같다'의 뜻이죠. 다 음의 문장을 보지요.

또 늦장 부리는구나. 그러다 보 니 툭하면 지각하는 거야.

그는 밤새 열심히 공부했다. 그 러다 보니 동이 트고 있었다. 예문을 통해 '그러다 보니' 앞 에 나오는 예문이 동작이나 행

Email: dbkw2000@gmail.com

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 나오는 말이 상태나 모양 성질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 면 '그러하다'의 준말인 '그렇다' 를 써야 하고, 앞에 나오는 문장 이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면 ' 그리하다' 혹은 '그렇게 하다'의 준말로 '그러다'를 써야 합니다.

단국대학교 한문교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졸업 문학박사 중부대 명예교수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대표 한국어문학회 회장 저서: 한국어문화문법외 50여권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건설, 토목, 플랜트

PT.HESSA

자카르타 0821 1464-1343

POSCO E&C INDONESIA 자카르타 021 7278-4686

PT. SEOHEE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91-6001

PT. KORINDO HEAVY INDUSTRY 땅그랑 021 595-0088

대림산업

자카르타 021 5296-1060

롯데건설

자카르타 021 5060-7257

PT. POWERTECH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20-2025

쌍용건설

자카르타 021 5795-0377

두산중공업

자카르타 021 2995-0102 현대건설

Engineering&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71-3700

현대 중공업 자카르타 021 2945-5201

대우건설

자카르타 021 250-6555

GS건설

자카르타 021 5785-3182

SK ECO PLANT

자카르타 021 2709-4662

SK TECH

자카르타 021 520-2025

삼환기업 자카르타

021 520-7439 삼성물산

자카르타 021 527-8182

현대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269-4208 PT. ALAM DUNIA ENG &

CONST(ADEC)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땅그랑 021 5579-8505

계룡건설

자카르타 0813 9809-7914

PT. ELJINDO

토목, 일반건설, 공장증축 자카르타 021 7883-3357

PT. SPACE TECHNOLOGY 플랜트 및 공장 설계/제작/시공/O&M 찌까랑 021 8990-2215

PT. P&I INDONESIA

Heavy Machinery, Supplier, Construction & Port Crane 땅그랑 021 5579-3855

PT. TUNAS DUNIA

자카르타 021 2936-3664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IWPLT(Solar Plant)) 자카르타 021 2782-2600

PT. SSA

EPC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62 812 1955 -5736

PT. DAEAH E&C INDONESIA 반튼 021-5574-1492

PT. HAN JIN KONSTRUKSI INDONESIA

General Engineering & Construction Contractor 세랑 반튼 0254 402323

SHINHW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PT.UTAMA JAYA TEKNIK

Engineering, Construction & Manufacture 땅그랑 021 5577 4507~09

PT. HANS JAYA UTAMA

건죽.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919-2055

PT. WOOIL INDONESIA 플랜트, 기계, EPC

땅그랑 021 5935-0229 PT.HAECHANG DEVELOPMENT

자카르타 0811 610 3042

PT. KMU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0813 1939 2260

인도네시아 건설 및 관련업종 디렉토리

인도네시아 한인 건설 및 관련 업종의 정보 디렉토리 입니다. 게재를 원하는 업체는 업체의 기초정보를 본지 이 메일로 보내 주시면 다음호 부터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메일:khong3000@gmail.com, 0821 1122 8827

친환경 옹벽, 사면보호, 벽면녹화 자카르타 021 581-4742

PT, KUMYI PLANT INDONESIA

JAKARTA SELATAN 자카르타 (021) 726 9976

PT. KUMGANG HYUNDAI INDONESIA 커튼월 및 창호 방화도어, 셔터, 자동문 각 종 판넬 공사

땅그랑 021 5568 5408

PT, KSK BANGUN KARYA 건설.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591-2718

PT. Muns Cipta Bangun 토목, 철골, 건축, 인테리어 땅그랑 021 5541-747

PT, BUANA INSKONSI JAYA Waste Energy Plant, Electrical, HVAC 땅그랑 021 3973-1528

삼성물산

자카르타 021 2988-0418

공단 및 지사

한국 수자원 공사

자카르타 021 5140-0025

한국 농어촌 공사 자카르타 021 7591-3414

국가철도공단 자카르타 021 5058-8812

건설공제조합

자카르타 021 5290-4042 산업인력공단

자카르타 021 7918-6012

ENGINEERING

PT.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021 652-0449

도화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140-0996

유신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26-2409

PT. 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652-0449

PRATAMA JAYA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6-8070

PT, P-CRANETECH ENG & SERVICES 자카르타 021 5435-0412

SAMSUNG C & T Corporation 자카르타 021 2988-0418

대영 엔지니어링 (DY) 자카르타 021 5794-5766

PT, DAEKYEONG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세랑, 반튼 0254 848-7678 PT. CNEX ENGINEERING

CONSTRUCTION Supply and Instalation, Fire Alarm and Fire Fighting System

자카르타 021 2920-4684 PT. JINWOO ENGINEERING 땅그랑 021 597-7810

PT, GLOBAL SUNG JUOO General Constructio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2538

PT. MULTI PERSADA Construction & Engineering, Civil, M&E, Treading

땅그랑 021 5578-0702 PT. PAJAR EKA YOUONE(FEY) Engineering & Construction

PT. FAJAR EKA YOUONE(FEY) Engineering & Construction 땅그랑 0254 781-3709

땅그랑 0254 781-3709

PT. JAYA TEKNIK KONSTRUKS(Besar/PMDN) Engineering & Construction 반튼/세랑 021 5574-1492

건축설계 사무소

정림건축종합건축사무소 자카르타 0852 1561-9583 PT.MSP(MAKMUR SISTIMINDO PERKASA) 자카르타 021 721 0356

전 기

SHINHWA TECHNO PLANT

F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SHINHW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LS Electric (구 LS산전) 전력 수배전 해외사업부 자카르타 0212933-7614

정석 테크 아바디 종합전기, Electrical & Supplier

땅그랑 021 5566-2989 PT. SAMJIN INDONESIA ENC 전기, 통신, 소방공사

자카르타 0812 8293-0448 PT. FIRDAUS INDONESIA Mechanical, Electrical, General Supplier & Contractor

chines & Auto

땅그랑 021 5940-2939 PT. BNC MACHINERY INDONESIA Electric Rebar Bending, Cutting Ma-

자카르타 021 5435-3589 PT. YOOHAN ELECTRIC & C Agen Cable Listrik (Eterna, Voksel & JJ-Lapp Cable), Electrik Equipment

땅그랑 021 5574-6345 PT. YUCOM JAYA MANDIRI General Contractor, Mechanical Electric, General Traiding

땅그랑 021 5949-2764

PT. UTAMA JAYA TEKNIK Electrical, Mechanical, Civil, Desig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4507

PT. WOOJIN CONSTRUCTION Electrical, Mechanical, Fire alarm, 자카르타 021 8991-3049

건축자재

LS전선

자카르타 021 3973-3988

PT.DWI MITRA ANUGRAH 에폭시, 바닥시공 021 880-3515, 0812 100-0055

PT. BITUTEK

지붕자재 아스팔트 슁글, 방수시트 제조 찌부부르 021-2906-0202

PT. TOILON INDONESIA Duct Insulation, Pipe Insulation, Roof Insulation, Bag Component, Playing Mat, Automative Part

땅그랑 021 5940-4086 PT.ARI TECH INDONESIA 공장수질개선. 정수시스템 0815 4655-5680

PT. MIDAS INDONESIA U-PVC 지붕자자 땅그랑 021 5428-7777

PT. ASIA CHEMICAL INDUSTRY 산업용 특수페인트 땅그랑 021 5579-0456

PT. MIRAN METAL INDONESIA Stainless, Galvanis, V-Cutting, Tekuk 땅그랑 021 596-9775

PT. SIAN U-PVC U-PVC System Window, ABC Door 보고르 021 8794-3838

건축자재, 소모품 유통 브카시 021 8991-2061 PT. CTS GLOBAL INDO 친환경 방음, 차음 펜스 생산 찌까랑 021 8991-2061/63

PT. EROM ABADI INDO

KORIANA TOOL Power tools, Scurity Tool, Mold Materials, 땅그랑 021 5940-0081

PT. MITRA METAL Metal Spray, Ceramic Coating,

Tungsten Carbide, Febrication 땅그랑 021 596-0522

PT. KYUNG HEUNG INDONESIA Sandwich Panel TM Roof & Wall Steel

Structure & Contractor 자카르타 021 530-7244

PT. ANEKA PANEL INDONESIA Manufacture of Sandwich Panel 자카르타 021 797-8989

PT. SUNWOO HOME INDONESIA Manufacturing Stainless Steel Pipes 땅그랑 021 5940-0288

PT. TOILON INSU PANEL Insulated Panel 땅그랑 021 5579-7181

HYUNDAI ALUMINIUM CO.,LTD 자카르타 0812-8706-7437

PT, FAJAR EKA INDOTAMA Steel Structure Fabricating, Piping (FAB & Instal), Mechanical Construction, 땅그랑 021 5444-393

PT, PUTRA HANKUK Steel Con's & Civil Engineering 자카르타 021 525-5784

PT.DANAKORINDO JAYA

땅그랑 021 5510-588 PT, KUMGANG INTERNATIONAL Curtain wall & Aluminum window/ Fire door & shutter.

HANSHIN 콤프레샤 땅그랑 021 5949-4000

자카르타 021 5568 5408

PT. DONG SUNG TOOLS 공구 머신툴 찌까랑 021 8990-2723

PT. SMART TECHTEX Door, Windows, Platon 자카르타 021 522-7983 에스와이패널

땅그랑 021 590-1888

땅그랑 021 2932-5742 PT. WARNATAMA CEMERLANG

PT. PRIME CON INDONESIA 바닥코팅

땅그랑 021 5316-3787 PT. SEJIN LESTARI FURNITURE Door, Furniture 땅그랑 021 591-8496

PT.NEWSUN 땅그랑 021 2901-7310

PT. DOLSEOK INDONESIA

땅그랑 021 2259-7930 PT. HYDRO JOTALINDO PERKASA

Master Dealer Lampung Sand Blasting & Painting Applicator 람뿡 0721 780 151, 0721 781 457

자카르타 021 3002-7184 PT. HFAI

PT. KCC INDONESIA

바닥 페인트, 에폭시 땅그랑 021 551-5218 PT. KCCI CHEMTECH INDONESIA

PT. LEBIH BAGUS 친환경 가설 자카르타 0821 1331 3430

에폭시 바닥제, 접착제 쯔빠라 0291 751-2706

CV.TROPIKA PERKASA 각종가구 / 건축용 합판 버까시 0811 1929 350

PT. Lineone indonesia Scaffolding Fabrication 땅그랑 021 5574 1492

PT. TOPSCO STEEL UTAMA KRAKATAU POSCO 후판공급 찔레곤 0813 8039 7748

PT. KTC MITRA INDONESIA U-PVC, 알루미늄도어, 창문, 하이샤시 보고르 021 8792-9422 NEXTIN

LED, Special Lighting 자카르타 021 3104-414

PT.indobaja 방화문제작, 철재절단, 절곡 땅그랑반튼 021 5935 5882

ECO INTERNATIONAL

맨홀뚜껑 & 그레이츠 0815 8989 667

PT. IMGLOBAL [PAPERYARN] 건축자재, LVR, DECO, DELUXE TILE 자카르타 021 2247-6211

PT. LINEONE INDONESIA

가설건축자재, Scaffolding, Field installation/dismantling 반튼/세랑 0215574-1492

PT, CKP ABADI

건축자재.페인트 브까시 021 8278-2456

설 비

PT. TOPINDO TEKNIK ABADI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021 7918-1917

PT, HYUNDAI ELEVATOR INDONESIA Maintanence & Repair, Spare Parts

자카르타 021 631-8444 PT. GEOSUNG SYSTEM INDONESIA Multizone Aircondisioner Clean room plane, HVAC Thermo-Hygrostat, Maintenance

찔레곤 025 434-0319 **KUMSUNG INDONESIA** Agen Samho Boiler

PT, MIURA INDONESIA Best Partner for Energy, Water, 자카르타 021 2902-2342

자카르타 031 664-1641

PT. KOREA FIBLON Lighting Innovation 자카르타 021 4280-1604

WOORIZEN INDONESIA

The Energy Saving Solution 자카르타 021 386-2228 PT.GEUM CHEON INDO

판금가공

땅그랑 021 5940-2454 PT. JM EKA PERSADA 대차, 바퀴, 팔렛, 토레이 땅그랑 021 558-6446

PT. TOP ABADI

. 팔렛 작업대, 대차 찌까랑 021 8990-2241 PT. HYUNDAI FACADE **ALUMINIUM INDONESIA**

땅그랑 021 2901-5282

PT. ECO international 맨홀(Manhole),그리스트랩 자카르타 021 2782-8878 PT. SUNG HWA PLUS

Total Fire Protection Solutions 자카르타 021 4064-2114 PT.OK ELEVATOR INDONESIA

자카르타 0857 1868-8798 PT_MJ indotech 공조설비, 소방설비, 건설안전자재 기계설비

자카르타 0812 1234 9080 PT.KIMS PIPING INDONESIA 플랜트, 배관자재 전문 찔레곤 0254 781 8901

인테리어

FI FVATOR

채움디자인

Design & Build

Interior, Branding,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7205-007

자카르타 021 8946 9398 PT.WELLZ-IN(웰즈인) Interior Furnitur & Architecture 자카르타 021 2912-4010

PT.DESIGN ACE Creative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Furniture, Sign 자카르타 021 7590-8858

PT.DECOREE INTERNATIONAL Interior, Architecture, Creative Design 자카르타 021 8066-7038

INI GALLERY INTERIOR & FURNITURE 자카르타 021 581-4742

PT, DUNIA INDAH MAKMUR K-Wallpaper & Wood Vinyl Flooring 찌부부르 021 8431-0753

PT. EOK ECO INDONESIA 인도어, 아웃도어, 인테리어 자카르타 021 7919-2426 PT. INDOKOR

Interior & Total Solution 찌부부르 021 8430-7773

PT. KES INDONESA

Interior & Exhibition 땅그랑 021 558-2105

LIVING A&I

Architecure & Interior 자카르타 021 7278-0704

YOU & YOU INTERIOR 021 719–1285

포워딩

F1 LOGIX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797 6237

ABADI TRANS LOGISTIC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4683 6025

PT. ACE MULTITRANS CARGO

International Air and Sea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260 4233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4287-0098

(주)소리항공 PT.BINTANG JAYA TRANS

자카르타 0851 0046 3552 PT. WIRAWAN KAWAN

SEJAHTERA (WIKAS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8379-1935 PT. CAHAYA INDAH LOGISTIC

A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751-3783

PT, HANINDO EXPRESS UTAMA

자카르타 021 252-5123

KAS EXPRESS

자카르타 021 2938-2773

자카르타 021 422-9282

PT.EAST GLOBAL LOGIX

자카르타 021 8063-0760

PT_KCTC INTERNATIONAL LOGIX 자카르타 021 797-5959

PT.PENASCOP LOGISTIK **TRANSNIAGE**

항공/해상, 수출입통관 자카르타 021 2867-3944

PT_LogisALL Global Indonesia

자카르타 021 8066-7220

PT.JUST IN TIME 자카르타 0813 1030-4644

PT. Pertama Logistic Service

땅그랑 021 558-6446

PT. KORNET LOGISTIC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항공/해상 수출입 통관

자카르타 021 4587-7350 PT.GLOBAL CHEM INTERNATIONAL

LOGISTIC & TRADING 찌까랑 021 2956 3356/57

INTERNASIONAL TOTAL SERVICE & LOGISTICS 자카르타 021 5011 2120

PT,KGL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56 3356/57

중 장 비 , 기계

현대건설기계

중장비 자카르타 021 5290 1493

KOTRACK

자카르타 82 10 8732-2928

PT, SUMA SUKSES SEJAHTERA

자카르타 021 522-2241

DAEWON CRANE GLOBAL 땅그랑 0812-1200-3344

PT. HD FORKLIFT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61-6497

반도 크레인

크레인 호이스트 자카르타 021 3002-7804

PT.CNB MACHINERY INDONESIA 건설관련 기계판매

땅그랑 021 5572-1090

컨설팅

OK 컨설팅

인허거, 비자, 세무, 부동산, 여행사 자카르타 021 7504-578

두왕 컨설팅

법인설립, 기업법률자문 전문 자카르타 021 2941-1043 (ext 102)

WINNERS CONSULTING

키타스,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5012-3277

반석 컨설팅

세무회계,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9193

PT. GAON INDO JAYA

키타스, 법인설립 땅그랑 021 5579-4626

PT. BNG CONSULTING

세무, 회계 자카르타 021 522-2739~40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땅그랑 021 5577-6454

PT. JOO CONSULTANT 세무, 회계

땅그랑 021 558-1616

WOORI CONSULTING

키타스,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4264

BNC CONSULTING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2912-6495/6

PERMATA FORTUNE INDONESIA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799-6182

통신, CC TV, 보안

PT. KINEZ

인터넷, 통신, CCTV 땅그랑, 찌까랑, 브카시, 스미랑, 자카르타, 보고르외 021 3002 9000

PT. GLOBAL SUMBER JAYA

CCTV/PABX/Access Control/ 자카르타 021 7251-606

PT. D&B NETWORK 자카르타 021 2938-5398

컴퓨터 원 CCTV, Computer 땅그랑 021 5579-6399

HANSTAR

인터넷 CC TV 자카르타 021 2906-7229

건물관리, 용역

ECONE

건물관리, 용역, 방역, 살균 자카르타 081 1111 8057

인력관리, 용역

PT.AGUNG SINAR BUNGKUK

인력파견 관리, 경비, 생산직,사무직등 자카르타 021 8952 7463

유니폼, 작업복

PT.KOTIK BATIK INDONESIA 작업복, 유니폼, 단체복, 현장죠끼 자카르타 0812 8118 6936

재인니 한국 건설협회

가입 및 문의 박건우 부회장

(0815 1902 4123)

인니, 논밭을 주택용지로 전용하는 새 법규 도입 추진

인도네시아에서 농지 보존과 주택 공급 문제가 국가 경제 와 사회적 안정성에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 가 택지 부족과 농지 감소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주택이나 산업용 토지로 전환돼 사라 지는 논이 매년 약 10만 헥타 르(ha)에 달하지만, 새롭게 개 발되는 논은 약 6만 헥타르에 불과해, 전체적으로는 농지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 지 보호지역에서 논을 주택 용지로 전환할 경우, 해당 개 발업체가 다른 지역에 사라지 는 논만큼 새 논을 개발하도 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 는 농지 개간 대상 지역으로 파푸아, 남부칼리만탄, 동부 칼리만탄, 중부칼리만탄, 남 부수마트라, 잠비, 벙꿀루를 선정했다.

'국가 지속 가능한 식량 농 지(LP2B)'로 명명된 새 규 정은 농지 및 공간계획부의 누스론 와히드 장관과 인프라 및 지역개발조정부의 아구스 하르무티 유도요노(AHY) 장 관이 이 계획을 주도한다. 누스론 장관은 11월 반둥에

서 열린 인도네시아부동산협



▲서부자바 가룻 지역 논 2024. 8. 22 [사진:데일리인도네시아]

규정은 농지 보존과 주택 개 발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 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쌀 생산 감소와 자급자족 목 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027년까지 쌀 생산 자급자 족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으 며, 다른 수입 의존 식량 품목 에서도 비슷한 목표를 설정했 다.

하지만 현실은 논도 쌀 생산 량도 감소하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인도네시아의 논 면적은 1,005만 ha로 지난해보다 줄 었다. 올해 인도네시아 쌀 생 산량은 3,034만 톤으로 추정 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76만 톤 감소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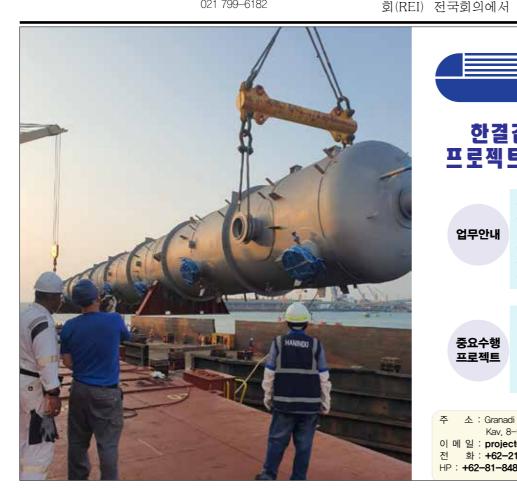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주택도

부족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주택 부족 물량이 2010년에 1,100만 가구에서 2022년에 1,270만 가구로 늘었다.

프라보워 행정부는 매년 저 소득층을 위한 30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 이 중 60% 이상 은 농촌 지역에, 나머지는 대 도시 및 그 주변에 건설될 예 정이다.

농지 및 공간계획부는 국가 가 보유한 주택 개발용 토지 는 약 7만9,000헥타르이고, 초기 목표인 신규 주택 300만 채를 건설하려면 2만6천헥타 르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아 울러 압류된 토지의 활용 가 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O]

PT. HANINDO EXPRESS UTAM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한결같은 안전운송을 자랑하는 프로젝트 물류 전문업체(Since 1993)

업무안내

- 수출입 화물 통관 및 해상, 항공 운송
- 프로젝트 특별허가 최근 수행
- (PIBB, MASTER LIST, SKB PPN) - 프로젝트 카고 및 건설 장비 운송
- 특수 장비 국내외 운송 및 통관 (중고장비 포함)
- LCT/BARGE TRANSPORTATION

중요수행 프로젝트

- Lotte Chemical LINE Project
- Grati CCPP Power Plant Project
- Rajamandala Hydroelectric Power Plant Project
- INAS Asahimas Chemical Project - Suban (Phase 1&2) Gas Project

소: Granadi Building 7th Floor South Wing, JI.H.R Rasuna Said Kav, 8-9 Kuningan Jakarta 12950 - INDONESIA

project@hanindo.net 홈페이지: www.hanindoexpress.com 화: +62-21-2525-123 (Hunting) Fax: +62-21-2520-551/556 HP: +62-81-848-5570 (Mr. Cho) Hp: +62-811-816-0627 (Mr. Shin)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65→40세로 낮춰야 국익에 도움"

재외동포청 주최 재외동포정책 학술 포럼서 다양한 전문가 제언 나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2024 국내 동포 정책에 대한 정부·학계·시민단체와의 대화'를 주제로 재외동포 정책 학술 포럼이 열렸다. 2024.12.6. [사진: 연합뉴스]

재외동포들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40세로 낮춰야 산업인력 증대 효과가 가장 크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2024 국내 동 포 정책에 대한 정부·학계·시 민단체와의 대화'를 주제로 개 최한 재외동포 정책 학술 포럼 에서 김재호 다산경제연구원 책 임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분석' 보고서를 발 표했다. 박 연구원은 복수국적자의 국 내 거주 생활에 따른 생산 효과, 부가가치 효과, 고용유발효과, 사회보험에 대한 기여와 조세 부담, 복지혜택과 건강보험 급 여 등의 사회적 관점에서 편익 과 비용을 비교한 결과를 토대 로 "40세로 하향할 경우 경제 활동 인구가 많아져 사회경제적 기여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럼에서는 현재 방문취업(H-2) 과 재외동포(F-4)로 이원화돼 있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통합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으로 재외동포를 비전문 분야인력 공급 풀로 활용하던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며 "이원화된 재외동포(H2, F4) 비자 체계를 일원화해 비전 문 분야 취업 확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체류 동포 규모가 현재보다 50만 명 정도 추가 유입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재외동포 정책은 저출산·고령화에 직면한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 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 확산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는 김용필 동포신문 대표가 발표자로, 이영근 재외동포 협력센터 이사, 송석원경희대 교수, 정영순 대한 고려인협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제3세션 좌장을 맡은 임영상 한

국외국어대 명예교수(전 재외한인학회장)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 학생들에게 특성화고와 일반고(학력 인정 대안학교 포함) 특화훈련을 통해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도외국국적 동포 청소년에게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허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인사말에서 "동포청은 국내 체류 동 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별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했다"며 "내년부터는 국 내 동포 정착 지원사업을 지방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 협업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HANSHIN

에어 콤프렛서

